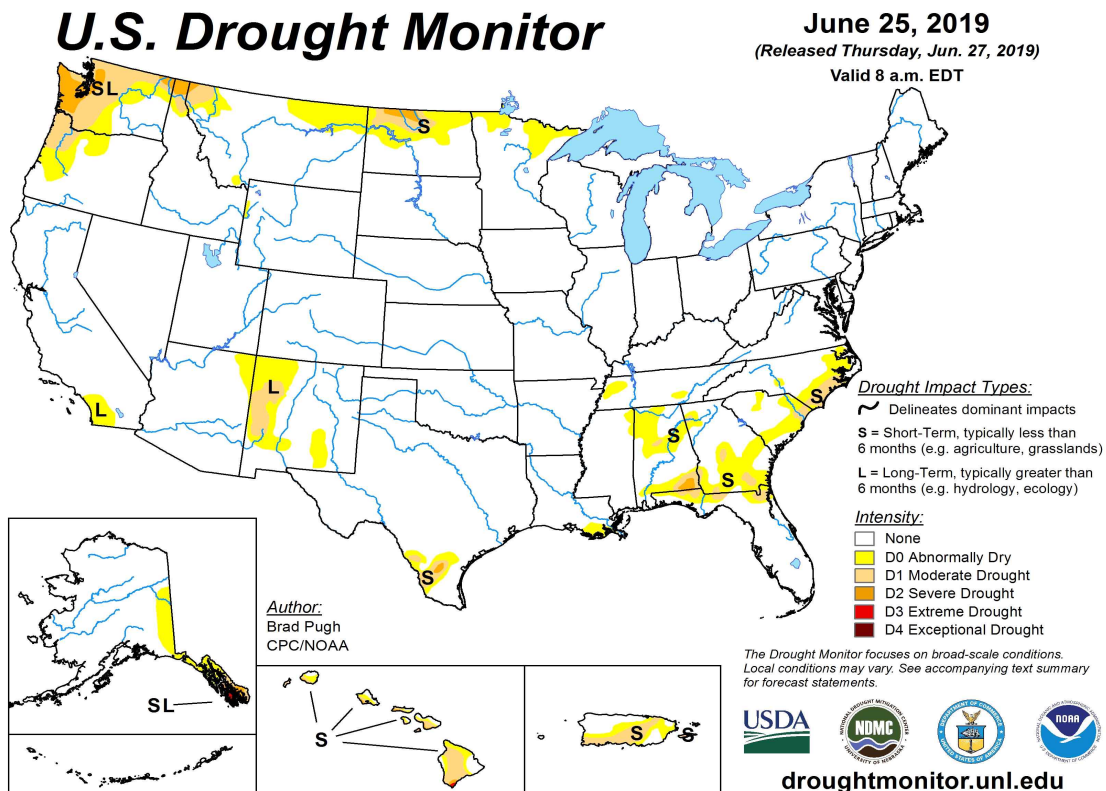


7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6)

□ 미국 기후 현황(6/23~6/29)

마침내 옥수수 벨트의 남부와 동부에서 폭우가 물러나서 미조리에서부터 미시간과 오하이오까지 늦철 파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서부 위쪽으로는 강한 소나기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발발하여 곳곳에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고 있었다. 강한 소나기가 멕시코만 서부와 중남부 일부에 침수를 일으켜서 겨울밀 수확 활동 및 기타 야외 작업이 제한되었다. 반면, 대서양 중부 지역과 고원의 중부와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그 결과 고원 지역은 북쪽으로 멀리 캔사스까지 겨울밀 수확 작업이 빨라졌다. 남동부 아래쪽의 일부에서는 초지와 여름작물에 미치는 조건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미국 북부에 있는 일련의 주들 가운데 서쪽 절반에는, 몬타나와 노스다코타에 이따금씩 소나기가 내리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다.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산맥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지만, 나머지 서부는 전체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정상 근처 또는 다소 낮은 온도로 야외 작업을 촉진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상보다 유의하게 높은 온도를 보인 곳은 플로리다 반도와, 오대호와 북동부 주들의 일부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중서부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발달이 지체된 옥수수와 콩에게 유익했다. 다만, 지나치게 늦게 파종한 경우는 문제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



□ 농업 현황 요약(6/24~6/30)

대체로 미국 동부 절반과 북부의 일련의 주들에만 한정되어 비가 내렸다. 강우는 미시시피 계곡 일부, 오대호 서부 지역, 텍사스 동부에서 가장 심하였는데 일부 지역은 2인치 이상 내렸다. 미국 남부와 서부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낮은 온도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아이다오 일부, 몬타나, 텍사스, 태평양 연안 주들, 남서부는 정상보다 2° F 이상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 반면 플로리다, 오대호, 대평원 북부, 대서양 중부, 북동부에서는 온도가 정상보다 최소 2° F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6/23~6/29)

■ 유럽: 열파가 유럽의 많은 곳을 덮어서 겨울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고, 여름작물의 생식을 앞당기고 있었다. 중유럽과 북유럽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조건이 겨울밀과 유채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아주 뜨거운 열이 (정상보다 5-10° C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낮 최고온도가 35° C를 뛰어넘어 (지역적으로는 40° C) 여름작물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동유럽에 내린 소나기는 지역적으로 온도를 낮추었고 (30-34° C), 이들 옥수수와 해바라기 지역에 미쳤던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온도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옥수수, 해바라기, 콩은 아직 온도에 민감한 개화 단계에 있지 않았다. 단, 최남단 재배지역에서는 주말에 옥수수가 솟아나기 출현 단계에 도달했다. 수분 공급이 발칸반도에서는 여름작물에게 적합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동프랑스와 북이탈리아에서부터 폴란드까지는 단기 건조 때문에 (30일 평균 강수량이 정상의 25-50%) 표토 수분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은 여전히 가뭄에 에워싸여 있었는데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주산지에서는 (특히 스페인의 카스틸라루레오) 90일 강수량이 정상의 50% 이하였다.

■ 구소련(서부): 중앙 지역은 뜨겁고 건조한 날씨였던 반면 남부, 서부, 북부 재배지역에는 유익한 비가 내렸다. 서러시아에 여전히 일부 고기압 지대가 닳을 내리고 있어서 동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서부-중부까지는 하늘이 화창하고 열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 지역의 낮 최고온도는 35° C까지 올라가서 (지역적으로는 38° C까지)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생식기가 정상보다 최대 2주 앞당겨졌다. 또, 북해에서부터 북쪽으로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남부 지방의 남쪽 구역들과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북부 카프카즈 지역의 남부에 있는 핵심적인 옥수수 지역에 내린 비가 유익하기는 했지만 강우량의 변동 폭은 매우 컸다 (5-70 mm). 먼 북쪽으로는 동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 중서부까지 건조 우려가 증가했는데, 이곳의 60일 강수량 평균은 정상의 25-60%였다. 이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작물은 개화기부터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던 보리였다.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생식기에 있지 않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북부까지 총 5-40 mm의 소나기와 뇌우가 널리 내려서 생식기에 도달 중인 옥수수와 콩에게 적기에 맞춰 수분을 공급하고 있었다. 동벨라루스에서부터 북러시아까지는 보다 강한 비가 (10-100 mm) 봄곡물과 유지작물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의 많은 곳에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영양생장 중인 여름작물을 위해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었다. 북동부는 흑룡강성과 인근의 내몽고 지역에 25-100 mm의 비가 내려서 옥수수, 콩, 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크게 신장시켜주었고, 길림성과 요동성에서는 10-25 mm (지역적으로는 이 이상)가 내려서 좀 더 알맞게 수분을 증가시켜주었다. 남쪽으로



황하에서부터 남부 해안까지는 25-100 mm의 비가 (지역적으로는 그 이상) 내렸고, 이 가운데에 좀 더 건조한 날씨가 드문드문 포켓처럼 산재하여 발생하였다. 이 수분은 최근 남부와 남동부에서 늦게 심은 벼의 활착에 도움이 되었고, 양쯔 계곡에서 영양 생장 중인 단작 벼에도 도움이 되었다. 북중국 평원의 남쪽 구역에 있는 여름작물들도 추가 공급된 수분으로 혜택을 보았다. 이런 비오는 날씨와 대조적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중국 평원의 북부 구역에 거대한 건조한 날씨 포켓이 생겨서 남은 밀 수확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여름 작물에게는 수분 결핍을 악화시켰다. 중요한 벼 지역인 남북한 국경 지대와 북일본 (홋카이도)은 여전히 건조하여 관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었고 남북한과 일본의 나머지 지역은 25-100 mm의 비가 내려서 벼에 유익을 주었다.

■ 호주: 밀 벨트의 많은 곳에 비가 내려서 영양생장 중인 작물에게 유익한 수분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주 내린 소나기는 남호주 남부에서부터 (5-25 mm) 동쪽으로 빅토리아와 (25 mm 이상) 뉴사우스웨일즈 남부까지 (5-25 mm) 뻗어 내렸다. 이런 날씨에 내린 비는 남호주에서는 밀에게 좋은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고, 한편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인근 지역의 작물들에게 상당히 그리고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같은 기간 초기에 내린 10-25 mm의 비가 (지역적으로는 그 이상) 서쪽 밀 벨트 (서호주의 남서부) 전역에 ‘30일 수분 조건’을 좋게 유지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와의 경계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 지역들은 5월 5일 이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잠재 수확량에 대한 조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최근 호주의 다른 곳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이른철 수분 결핍을 없애고 양호한 작물 발달을 유지하려면 비가 더 내려야 한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에 수주간 지역적으로 심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건조한 날씨가 다시 시작되었다. 먼 동쪽 구역에 중간 수준의 강우가 (10 mm 이상) 몇 군데 포켓처럼 내린 것을 제외하면 주요 농업 지대 모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건조와 함께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져서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낮 최고 온도가 섭씨 10도 대 상반을 기록했고 차코와 포모사에 있는 전통적으로 따뜻한 곳들에서는 섭씨 30도 대 하반의 수치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26일 현재 목화는 대략 75% 수확되었고, 옥수수 수확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밀은 전국적으로 51% 파종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여 7% 정도 지체되고 있다.

■ 브라질: 지난 수주간 시기적절한 건조가 있는 후에 남브라질에 소나기가 다시 시작되어 계절적인 야외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리오그란데도술에서부터 파라나 중부까지 총강수량은 10-50 mm 였는데, 북서쪽으로 마토그로소파라나까지 곳곳에 가볍게 비가 내렸다 (대체로 10 mm 이하). 계절에 맞지 않게 더운 날씨로 (건조한 북서부에 위치한 곳들에서는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최대 4° C 높았고, 낮 최고 온도가 섭씨 30도대 하반까지 이르렀다.) 밀의 출현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로 파종한 옥수수는 6월 24일 현재 34% 수확되었고, 나머지 작물의 거의 75%가 성숙에 도달하였다. 한편 밀은 91% 파종되었는데 출현된 작물의 6%가 개화 중에 있다. 리오그란데도술에서는 6월 27일 현재 밀 파종이 73% 이루어졌는데 5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북동부 해안을 따라서 약한-중간 수

준의 비가 내려서 (10-50 mm) 사탕수수, 코코아, 기타 지역적으로 중요한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올려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부와 내륙의 북동부 생산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건조와 온난화가 성숙중인 옥수수와 목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6월 28일 현재 41% 수확되어 작년 추이에 (21%) 비하여 거의 두 배 높았고, 5년 평균과 (24%) 비교해도 상당히 높았다. 목화 수확은 매년 이맘때처럼 이제 막 시작되었다 (2% 완료).